

지리산자락 울리는 ‘락 스피릿’ 준비 한창

오는 25일 친환경 실천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

Non-GMO곡물로 키운 치킨·소시지 등 먹거리 풍성

지리산 자락을 락으로 흔들 여름축제 ‘2018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이 오는 25일 개최된다.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은 내 안의 락(樂Rock)을 깨워줄 뮤지션 8개 팀을 선정했다. 압도적인 무대를 자랑하는 이승환을 비롯해 자우림, 로맨틱펀치, 안녕바다, 정훈밴드, 라이브유빈, 오리엔탈쇼커스, 406호프로젝트와 함께 락 스피릿 충만한 무대를 선보인다. 페스티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

리다. Non-GMO 곡물로 키운 치킨과 소시지, 맛과 향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바베큐, 국산 재료로 만든 우리밀 피자 등 풍성한 먹거리를 마련한다. 특히 비어락하우스에서 만든 신선한 유럽식 수제맥주 에일, 필스너, 라거, 바이젠은 축제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또한 자연드림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무더위를 식혀줄 인기 코너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특별한 놀이터에 참가자의 상상력을 더한 ‘자연드림 놀이터’가 마련된다. 종이박스, 남은 나무 목재, 폐휴지심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체내독소(바디버튼)를 확인하는 신호등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먹거리와 생활용품의 화학물질을 알아보고 체내독소 줄이기 실천방안을 공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DIY가방 만들기, 분리수거 캠페인 등 관객이 참여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티스트의 시원한 사우팅과 함께 무더위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 가족 단

위 관람객을 위해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을 마련하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파라솔을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얼음물과 음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의료진과 구급차, 경찰, 소방대원 항시 대기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한편, 올해 행사는 관객의 편의성을 위해 구례자연드림파크 옆 지리산호수공원 오토캠핑장(구만제)에서 펼쳐진다. 작년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행사장과 주차시설 사이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주차는 캠핑장을 비롯해 산수유문화관과 자연드림파크에 가능하다. /구례=이성구 기자



‘2018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이 오는 25일 자연드림파크 옆 지리산호수공원 오토캠핑장(구만제)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이승환을 비롯해 자우림, 로맨틱펀치, 안녕바다, 정훈밴드, 라이브유빈, 오리엔탈쇼커스, 406호프로젝트 등 뮤지션 8개 팀과 함께 한다. /구례군 제공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순천시의회 오광목 의원 발의

순천시의회 오광목 의원(상사·남제·도사동)은 13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12년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이 개통돼 전남 동부권과 도청이 있는 서부권간 이동거리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으로써 도내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천만IC 통행료 부과로 인해 IC를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이 도심지역을 통행함으로써 곳곳에서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

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천만IC 통행료 폐지되면 순천만IC로 도심 교통량이 분산돼 대기시간과 매연 감소,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연료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통행료 부과에 따른 미미한 세수보다, 통행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순천=남정민 기자

보성강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본격화

367억 투입 상습 침수지 개선

보성군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검백면(도안리, 석호리, 평호리) 일대에 367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보성강1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검백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보성강1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하천 범람 및 침수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지방 하천 정비(4.2km) ▲배수 펌프장 설치(3개소) ▲고지 배

수로(0.9km) 및 기존 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상습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대상 지역인 검백면 도안리, 석호리, 평호리는 보성강댐 하류부로 집중 호우시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 재해 취약 지역으로 보성강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증가되는 자연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전하고 희망찬 보성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원 기자

영광 도서지역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

영광군과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 10일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강영구 부군수와 김철중 한국에너지재단 효율사업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 날 협약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사업비(2억원)에 추가로 군 예산(3천600만원)을 매칭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창호 및 단열공사, 보일러 공사 등을 비롯한 장판 교체까지 1가구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 부군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집수리를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도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영광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고흥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제안 접수

고흥군은 2019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와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예산과정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확보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설문조사와 제안사업에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시급성·공익성·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고흥군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고흥군의회에 제출해, 확정된 후 군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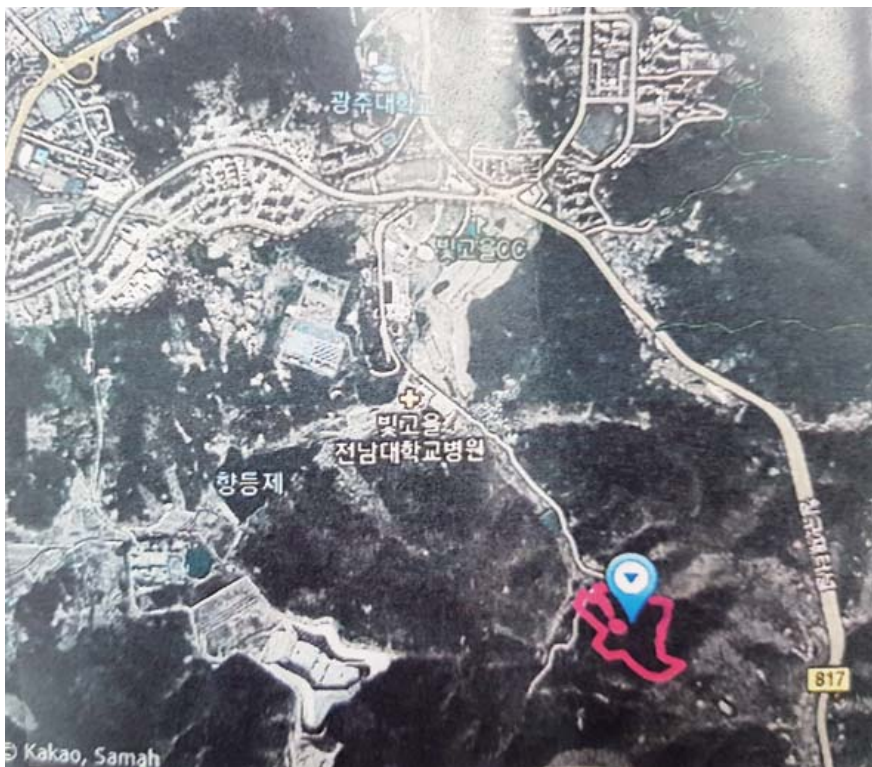
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재 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읍면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또 주민제안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읍면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이 좀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함평 보리·밀 ‘안전한 육묘’ 발아검사 지원

함평군은 맥류 파종시기를 앞두고 8월부터 11월까지 보리, 밀의 안전한 육묘를 위해 맥류 발아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맥류 출수기의 잦은 강우와 이상저온으로 인해 발생한 붉은곰팡이병과 미숙립의 발생으로 우량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게 발아검사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발아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200g정도의 종자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종합검정실에 의

뢰하면, 저온처리과정을 거쳐 항온항습기에서 발아율을 테스트 한다. 의뢰일 기준 5-7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발아율 8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종자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김동표 기술보급과장은 “발아율이 낮은 종자를 파종하면 맥류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므로 발아검사를 통해 우량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